

新 풍속도 '간편 명절'

직장인 60% 나홀로 추석...간편 제수음식 매출 283% ↑
 광주·전남 산림조합 별초 대항도 전년비 34.2% 증가
 안마기 구매 148.3% 증가...“차례상 간소화” 응답률 80%

코로나19 여파와 팍팍한 지갑 사정 때문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추석 명절에 귀성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간편식으로 차례상을 차리고 나홀로 추석을 보내는 '혼추석'이 늘어나면서 유통가 풍경도 크게 바뀌었다.
 24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 집포들의 가정간편식 제수음식 매출 구성비는 지난 2018년 5%에서 올 9월 현재 13%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간편식 제수음식 매출은 지난 2018년에 비해 283%나 올랐다.
 이마트 측은 핵가족화 등으로 명절에 전통적인 차례상 대신 전, 떡갈비, 나비아니 등의 음식만으로 간단하게 간소하게

준비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은 간편가정식 제수음식 매출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광주지역 이마트의 간편식 브랜드 '피코크' 매출 상위권을 보니 모듬전, 떡갈비, 동태전, 오색꼬지전, 완자전 순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다음 달 4일까지 피코크 제수음품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한다.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안마기를 중심으로 안마용품도 명절 특수를 누리고 있다.
 올해 1월1일~9월15일 광주 이마트 안마기 매출은 1년 전보다 148.3% 뛰었고, 안마의자도 5.8% 증가했다. 이마트 측은

안마기의 경우 설·추석이 포함된 명절기간 판매량이 연간 총 판매량의 27%를 차지한 점을 감안해 명절 전후 수요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면 추석'이 자리잡으면서 광주·전남지역 별초대항 건수도 부쩍 늘었다.
 광주와 21개 전남 시·군지역에서 별초도우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이달 15일 기준 별초를 완료했거나 예약상태인 건수는 8138건으로, 1년 전 6062건 보다 34.2% (2076건) 급증했다.
 전남지역 18개 시·군 28개 지역농협도 이달 초순 이미 2660건 넘는 예약을 접수하고 처리하면서 지난해 실적을 넘겼다.
 실제 올해 추석에는 고향을 찾지 않거나 차례상을 차리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높은 설문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취업정보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354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명 중 3명 꼴(57.7%)은 "귀성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1년 전 조사 때

보다 18%포인트 증가한 응답률이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이동 및 친지가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67.1%·복수응답)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서(21.4%) ▲지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14.6%) ▲교통대란이 걱정되서(5.2%) 등 이유도 있었다.
 이베이코리아가 이달 15~21일 고객 1362명을 대상으로 벌인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 80%가 "이번 추석에 차례상이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지 않거나 간소화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명절 음식 규모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고,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6%였다. 19%는 지난 추석과 비교해 지출을 늘릴 항목을 물었더니 '추석 선물 비용'이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이나 자녀 용돈' (28%), '집에서 즐길 취미 용품 구매' (21%) 등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연택트 수출상담회 수출 활로 개척 '톡톡'

한국광산업진흥회, 82건 상담·160만 달러 계약 달성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최근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160만 달러(18억원)의 수출 계약 실적을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진흥회는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광융합산업체 기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을 구축해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다.
 국내 기업의 항공료와 해외체류 비용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전환하면서 예산 절감 효과도 거뒀다는 게 진흥회의 설명이다.
 이번 온라인 상담 지원으로 지난 50여 일간 국내 기업 32개사가 참여해 82건의 수출상담이 이뤄졌고, 총 16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다.

이밖에 진흥회는 코로나19로 해외마케팅 및 수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1석2조 비대면 지원책'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여기업에게는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컨설팅'과 실질적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물류비', 연택트 마케팅을 위한 '글로벌홍보체계 구축',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수출보험료 등도 지원 중이다.
 조운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온라인 수출상담회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코로나로 인한 교역장벽을 허물고 국내 광융합산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축협들, 명절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전남축산농협 운영협의회

전남지역 축산농협들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힘쓰기로 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4일 영광축협 회의실에서 지역 19개 축협과 '전남축산농협 운영협의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회 회의에는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과 차장권 전남축협운영협의회 위원장(장성축협 조합장) 등 지역 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전남본부는 추석명절 귀성객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가축전염병 발생-전

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요 축산시설에 대한 꾸준한 소독과 대국민 방역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해는 주변국을 포함한 유럽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이 2배 넘게 급증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가금류 사육규모를 보면 전남지역은 오리 사육은 전국 1위, 닭 부문은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악성가축전염병 차단 방어를 위해 귀성객과 여행객은 축산농장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 여행객은 햄·소시지를 비롯한 축산물 국내 반입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가계·기업 빛, 경제 규모 2배 훌쩍...역대 최고

GDP의 206.2% 집계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기업 등 민간 빛이 나라경제 규모의 두배를 훌쩍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2020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현재 민간 부문의 신용(가계·기업의 부채)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06.2%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말(201%)과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5.2%포인트나 뛰었고,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선 가계 신용을 보면 2분기 말 기준 가계 부채는 1637조300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5.2%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이 각각 6.4%, 3.9% 증가했다.
 이처럼 가계 빛이 빠르게 불어나는데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2분기 말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66.5%로 높아졌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 기록이다.
 기업 신용은 2분기 말 현재 2079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897조1000억원) 대비 9.6% 증가한 규모로, 2009년 3분기(11.3%)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4만 4000원

갈수록 오르는 차례상 비용

전주대비 시장 5129원 상승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차례상 장을 보면 24만40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3일 기준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4만4000원, 대형 유통업체는 34만2000원으로 전주대비 각각 2.1%(5129원), 0.2%(649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모두 각각 8.2%, 9.1% 상승했다.
 조사는 전국 19개 지역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실시됐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품목은 배였다. 배 5개 가격은 1만3977원에서 일주일 새 1만7767원으로, 3790원(27%) 올랐다. aT 측은 원황에서 신고로 주력 품종이 교체되면서 배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사과 5개는 7% 오른 1만5317원이었고, 녹두(6.5%), 배추(6.2%), 강정(2.5%)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밤(-3.1%)·대추(-9%) 등 임산물은 햅쌀 및 정부 보유물량의 집중출하로 가격이 하락했다.
 /백희준 기자 bhj@



돌봄이웃 청소년에 장학금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본부장 최영·왼쪽 세 번째)는 지난 23일 광주시교육청을 찾아 돌봄이웃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농협은행 광주본부 제공>

한전KDN 대학생 홍보대사 '케미' 온라인 해단식

광주·전남 15명 등 대학생 25명으로 구성된 한전KDN 홍보대사 '케미'가 석 달간 활동을 마쳤다.
 한전KDN은 23일 나주 본사에서 대학생 홍보대사 '케미'의 온라인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단식에서는 ▲할

동보고 ▲시상식 및 수상자 소감 발표 ▲전략홍보실장 감사인사 ▲특별 대표 소감 발표 ▲대상팀 UCC시청 등이 이어졌다.
 이날 '한전KDN 대학생 홍보대사 5분 뉴스'로 UCC대상을 수상한 이가영씨는 "한전KDN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전력ICT산업과 전력시장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며 "UCC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최선을 다해준 팀원들에게 모두 고맙다"고 말했다.
 대학생 홍보대사들은 지난 6월부터 한전KDN의 그린 뉴딜사업, 지역상생 사업 등을 홍보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